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과  
전발연의 대응연구**

2008.2

**전북발전연구원**

## <차 례>

### I. 새정부의 주요 거시정책 전망과 대응

1.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	3
2. 새만금사업의 향후 전망과 대응 .....	9
3. 새정부의 행정 및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대응 .....	17
4.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획특강 .....	22

### II. 전북의 4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연구

1. 부품소재산업 .....	24
2. 식품산업 육성 .....	26
3. 신재생에너지산업 .....	30
4. 문화관광산업 .....	32

### III. 전북의 2단계 성장동력산업 연구

1. 고령친화산업 .....	35
2. RFT 산업과 과학창조도시 .....	40
3. MFT산업 .....	42
4. 항공우주산업 .....	46
5. 디자인산업 .....	48

### IV. 기타 주요 정책전망과 대응

1. 생태탐방로 .....	54
2. 기타 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대응 .....	55
3. 1시군 1프로젝트와 전발연의 대응 .....	56

# 1. 새정부의 주요 거시정책 전망과 대응

## 1.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sup>1)</sup>

### 1) 개념과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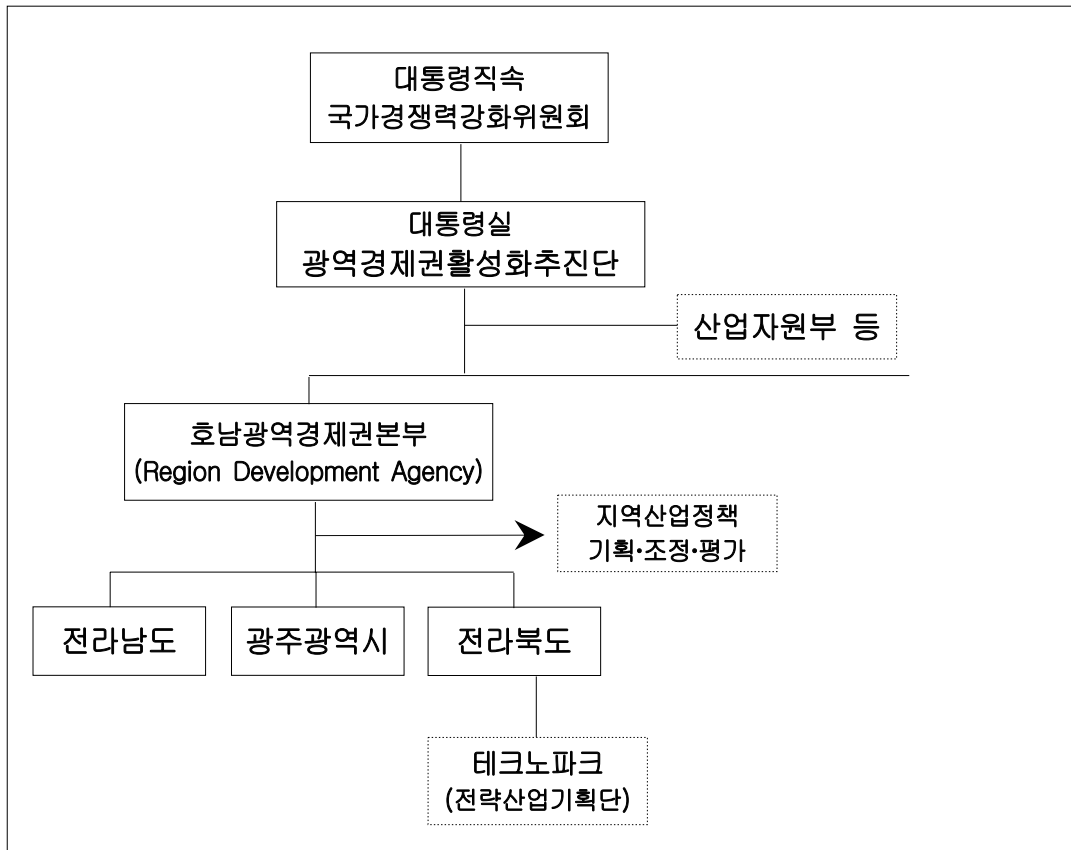
-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 지역정책이 지역간 사업중복, 한정된 재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부진 등의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경제체제에서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지역간 공동발전·실질적 지방분권이 일체화된 「**창조적 광역발전**」 추구한다는 비전 제시. 그 구체적인 정책형태로 <5+2 광역경제권> 제시
- 광역경제권의 6대 전략은 ①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③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④ 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로**의 전환 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⑥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 추진체계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대통령실 산하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권역별로 <광역본부>를 설치. 재정은 광역경제권 특별회계(균특회계 등 편입)와 광역발전포괄보조금 도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남해안선벨트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 거점 및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의 성격을 가진 **전략적 육성과제가 핵심**

1) 광역경제권 연구는 전발연 내 TFT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 TFT는 원도연소장, 이창현박사(지역개발), 김진석박사(혁신전략), 나상균박사(산업정책), 모영환박사(전략산업, 인수위 파견중)로 구성되어 있음. TFT에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 전북도청 내 각종 자문활동, 자체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음

## 2) 광역경제권의 의미와 문제

-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 단위의 광역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지역산업발전모델임(오마에 겐이치의 지역국가 region state)

<그림 1>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예상도



-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 지역개발정책의 근간이자 지역산업진흥정책의 핵심전략이 될 것임. 광역경제권은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대체하고,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개념은 지역경쟁력 개념으로 대체될 것임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핵심은 산업정책이 될 것으로 예측됨.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가 주도한 지역혁신전략산업(지역산업진흥정책)이 광역권으로 확대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됨

-즉 참여정부에서 테크노파크 및 전략산업기획단이 해온 역할을 지역개발청(RDA)이 수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 높음. 즉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개발위원회(중앙)

으로 대체되고, 테크노파크와 전략산업기획단은 광역경제권개발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

- 지역정책의 1차 관건은 지역개발청(RDA)에 전북의 몫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임. 전북의 전략과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전북도정의 핵심은 산업정책. 특히 부품소재, 신재생, 기계, 자동차 등의 주제가 광역경제권본부에서 다뤄질 것임. 여기에 디자인 산업이 최근 주요 아이টে으로 등장  
-식품산업, 관광, 고령친화 등은 광역경제권본부에서 직접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됨. 광역경제권본부가 모든 중앙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기는 어려움

- <광역경제권> 전략은 ① 수도권과 타 광역권이 동일한 단위로 배치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의 불균등발전을 그대로 반영하는 ‘불균등발전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② 호남광역권 내에서는 공간구조상 전남에 비해 명확한 거점도시가 없는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③ 전북도의 항만 및 물류산업과 국제공항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점 예상

### 3) 광역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도의 산업전략(안)

- 전북지역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① 궁극적으로는 <전주-익산-군산>의 산업적 연계와 특성을 강화하여 발전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② 광역경제권의 기본정신에 부응하는 산업발전모델의 개발 및 발굴 ③ 기존의 산업(부품소재, 식품, 관광)을 광역경제권 발전모델에 맞도록 재정비 ④ 6월 광역경제권특별법 통과 이후로 예상되는 <호남광역경제권본부>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비한 준비 등

- 산업전략은 부품소재산업, 자동차,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광역경제권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산업분야에 집중 대비하는 것이 필요

#### ① 전북도의 특화산업(1) : 식품산업

-전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발전시킨 식품산업은 전북도의 독자 아이টে으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높음

- 식품산업은 ① 전국의 군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의 종합지원센터 및 R&D 지원기능 ② 향후 세계시장 장악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R&D 및 인증센터 ③ 국내외 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산업 단지조성 및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의 3대 기본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종합 R&D 센터 및 인증센터 구축사업으로 발전
- 식품산업의 경우 전북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 산업을 통해 전국의 초광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② 전북도의 특화산업(2) : 탄소소재산업의 강화 및 특화전략

- 차세대 핵심소재로 꼽히는 탄소소재 분야에서 유일하게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등 주요 관련산업의 초광역화 시도
- 국가적 차원의 탄소소재 산업 핵심기지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③ 전북도의 특화산업(3) : 농기계산업의 핵심 생산단지 구축

- 두산인프라코어, LS전선 등 국내의 대표적인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집적된 전북의 기계산업 특성을 발전시켜 수출용 농기계산업으로 전환 유도
- 중국, 러시아 등 대규모 농장에 적합한 농기계의 생산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의 불가능했음. 이를 가능할 수 있도록 새만금 농업단지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 대형 농기계산업 육성을 통해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④ 전남북 연계 광역화산업(1) : 상용차 클러스터 구축사업 :R&D 및 부품산업

- 광주의 아시아자동차와 전주, 군산의 상용차 생산라인을 자동차산업의 특화전략으로 제시하여 호남광역권 사업의 핵심아이템으로 발전
- 관련 R&D와 부품산업 육성전략을 호남광역권 차원에서 제시하여 정부지원 확보

## ⑤ 전남북 연계 광역화산업(2) : 자동차 센서 및 전장(전기장치)부품

- 자동차 전장부품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음.

최근 첨단자동차 및 미래형 자동차가 기계공학 및 전자공학, 재료공학, 정보공학, 통신공학 등 광범위한 공학 분야의 집대성으로 나아가면서 자동차가 전자제어 기술의 총아로 변모

-따라서 자동차 전체 품질과 안전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결정짓는 요소가 과거 기계 기술에서 전자기술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더불어 첨단 전장부품과 플라스틱부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

-자동차 속에 장착되는 전장품 시장은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용 전장 부품 시장만 하더라도 오는 2012년께 14조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전남북의 상용차와 승용차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전장부품기술과 센서산업을 호남광역경제권 자동차산업의 핵심 아이টে으로 발전시킴

#### ⑥ 전남북 연계 광역화산업(3)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산업

-광주의 광산업과 전북의 태양광산업을 연계, 태양광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요청

#### ⑦ 전남북 연계 광역화산업(4) : 항공부품산업

-전남의 고흥 일대 항공산업과 전북의 탄소소재산업을 연결하여 항공부품산업에 진출. 탄소섬유를 활용한 전북의 기초소재를 항공기 부품산업으로 발전

○ 광역경제권 내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가능성 있음. 이 경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북도의 각 시군간 교통체계 개선과 통합성 증진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공항 전략은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 차원에서 국내 공항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북의 국제공항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함

#### 4) 전북도의 대응 및 전발연의 후속연구

○ 전발연의 잠정적인 연구과제 및 세미나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전북도와 필요성 및 연구비 관련 협의를 거쳐 수행할 것임

- ①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전북의 핵심특화산업 연구> (2~3월 중 개최)
- ② <전북 부품소재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3월 중 개최)
- ③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3월 중 개최)
- ④ <호남권 항공우주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3월 중 개최)
- ⑤ <호남권 서해안관광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3월 중 개최)
- ⑥ <광역경제권 전략에 따른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2~3월 중 개최)
- ⑦ <광역경제권 전략에 따른 전북의 공항전략 연구> (2~3월 중 개최)
- ⑧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남 및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 심포지움 개최 등 (3월 중 개최)

#### ○ 광역경제권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안)

-목표 : 광역경제권 사업의 개념과 방향, 현재까지의 연구동향,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심화토론을 조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대안마련

-방식 : ① 8~10명 내외의 도내외 전문가 그룹을 고정패널로 하여 총 3회 이상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사업의 방향 및 과제 도출 ② 각 세미나에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토론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의 의미로 간략한 발제를 실시 ③ 총 5차의 전문가 FGI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최종결과를 확정

-고정패널 구성(안)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이송인박사(부품소재산업)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신귀수박사(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육완구센터장(자동차산업)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강신재교수(소재산업)

전자부품연구원 신진국분원장(센서, 인쇄전자)

전북발전연구원 원도연소장(총괄정리)

전북발전연구원 이창현박사(교통인프라)

전북도청 기획관, 첨단부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관광개발과장 등

-일정 : 2.27-3.12 매주 수요일 총 3회 추진(1차)



## 2. 새만금사업의 향후 전망과 대응2)

### 1) 현황과 전망

- 현재 새만금 사업은 ① 내부 산업용지를 30%에서 70%로 확대하고 ②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앞당기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조정중
-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정책결정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 TFT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북도 새만금개발국과 협의를 진행. 전북발전연구원은 간접적으로 정책 지원 및 자문역할 수행

발주기관 및 과제수행기관	과제명	과제기간	전발연
한국농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새만금 내부 농업용지 활용방안 연구	진행중	자문참여
한국농촌공사 (미정)	새만금 방조제명소화 만들기 기본계획	2008.3	-
전라북도 (충정회계법인)	환황해국제해양관광지 컨설팅용역	진행중	자문참여
전라북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새만금인접부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진행중	일부참여
전라북도 (한국도시설계학회)	새만금 내부개발구상 국제공모	진행중	자문참여
전라북도 (산업연구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진행중	공동연구
부안군 (전북발전연구원)	새만금개발에 따른 부안군 연계발전방안	진행중	책임연구
문화관광부 (미정)	새만금 내부관광개발 기본구상	상반기중	-

- 전발연 TFT에서는 ① 인수위 새만금 TFT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개발 방안을 종합

2) 새만금 사업 TFT는 이창현박사(지역개발), 박형창박사(항만물류), 김보국박사(수질), 원도연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TFT는 인수위 출범과 맞추어 전발연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관련 연구를 각 영역별로 진행하고 있음

분석하고 ② 새만금 신항만 개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 ③ 새만금 개발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참여 ④ 새만금 내부 및 외부를 둘러싸고 추진되는 각종 연구사업의 조정 및 참여

## 2)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 새만금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법적 요건의 변화와 새정부 출범으로 새만금 사업의 전체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비책 필요
- 새만금 지형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은 ①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② 어떤 방식으로 내부개발사업을 앞당길 것인가 ③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등
- 새만금 내부개발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 ① 새만금은 세계경제권, 동아시아경제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새만금 자체의 지정학적 경쟁력은 무엇이며, 그 지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②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예측해본다면 새만금은 한국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 것인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질 것인가
  - ③ 새만금의 도시개발 모델은 무엇인가, 두바이인가 송도인가. 두바이와 새만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송도와 새만금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가
  - ④ 중국은 새만금의 영원한 해답인가.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⑤ 지금까지 제기된 새만금 내부개발의 유력한 방안 중 <세계경제-국가경제-전북도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한 산업은 무엇인가. 과연 농업은 버려야 할 가치인가, 농업, 첨단산업, 관광, 기타의 4대 아이템 중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 콘텐츠의 측면에서 다음의 4가지 가설과 해결전망

-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는 어떠한가.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능성과 약점을 갖고 있는가
- 첨단산업(부품소재, 우주항공, 바이오, 자동차부품)산업은 과연 새만금의 정답인가. 어떤 전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 관광산업(카지노,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 골프) 등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물류, 교육, 영상, 의료휴양, 국방산업 등은 어떤 기본개념과 내용을 갖고 있는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 위와 같은 기본질문을 중심으로 총 5차에 걸친 세미나가 기획되어 있음. 전발연에서는 용역기관인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전라북도를 지원하여 세미나를 공동기획하고 참여

- ① 1차(2008.02.29 금) : 새만금 개발방향 및 기본컨셉 토론
- ② 2차(2008.03.04 화) : 새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1)
- ③ 3차(2008.03.07 금) : 새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2)
- ④ 4차(2008.03.11 화) : 새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3)
- ⑤ 5차(2008.03.14 금) : 새만금 성공의 조건과 개발프로그램 정리(종합토론)

○ 전발연 추천전문가(안)

- 이창재(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전문위원)
- 정창무(서울대 도시정책과 교수)
- 김현주(삼성경제연구소 정책개발실 수석연구원)
- 이인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 김주훈(KDI 산업경제연구부 연구부장)
- 김영수(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 강희찬(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 임영모(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 신진국(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장)

- 이정희(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고유상(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 박정환(라보뱅크 한국지사장)
-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 전계성(홍콩폴리텍대학 호텔관광학과 석좌교수)
- 김영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김성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웨인 한센(캐나다 선메디컬그룹 부회장)
- 정중재(충북대 교수)

### 3) 새만금 신항만 관련 동향 및 세미나 계획3)

-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새만금 T/F팀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비율을 재조정하고 개발시기를 앞당기면서, 새만금신항 개발도 당초 2020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긴다는 해수부의 내부논의가 진행중
- 새만금 신항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항만 건설 예정지인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가 필요하며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관계부처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필요. 신항 개발고시까지는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을 위해 ① 신항만 예비타당성 조사 ② '09년 새만금신항 기본 및 실시설계, 어업피해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③ '10년 공사착공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새만금 신항을 조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긍정적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하며, <신항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항만물동량 수요가 논리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관건임
-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에 필요한 물동량 추정의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마련하여 해수부의 용역에 반영해야 함. 동시에 전북지역의 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 및 지역이익에 부합하는 신항개발이 이

---

3)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동향분석 및 정리는 박형창박사 담당

루어지도록 해야함

○ 따라서 새만금 신항개발의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항만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함. 이에 따라 본 워크숍의 기본방향은 “새만금 신항의 조기개발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의 논리를 개발하고 항만개발법 등 주요 제약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 필요. 이를 위한 본격 연구 이전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새만금 신항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함

○ 세미나의 주요 쟁점

-새만금 신항의 항만물동량 수요가 얼마나 창출되는가에 개발여부의 성사가 달려 있음. 그러나 현행 방식의 산업단지 대비 새만금 신항만 물동량 추정방식인 내생적 항만물동량 추정방식으로는 항만물동량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임. 따라서 내생적 외생적 물동량 추정방식의 논리를 제시하는 대안이 도출되어야함

-새만금 신항개발은 국가 및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항만개발이 이루어져야함. 이러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항만기능, 항만규모, 사업비 등의 방향제시가 이루어져야함. 동북아의 중추항으로 할것인가, 단순 무역항기능의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하는것이 좋은가, 무역항 및 크루지 기능을 합한 통합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함

-항만 위치의 기술적 문제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재검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함. 현재 거론된 안으로는 선유도부근, 비안도와 신시도사이, 비응도와 야미도 사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단점의 논란이 있음.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위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항만개발의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지에 항만위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함

○ 새만금 신항 논리 개발을 위해 총 3회의 세미나 계획

#### ① 1차 워크숍(안) (2월 21일 군산)

-주제 :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 방안

-방식 : 반공개 라운드테이블 주제토론 방식

-주제발제 : 박준권(해양수산부 항만개발 과장),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토론자 : 김병일(항만연수원 교수), 김용태(전라북도 건설물류국 국장), 강민규(군산시 산업경제국장), 서수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문위원), 백대영(호원대학교 교수, 한국항만경제학회 부회장), 박창호(재능대학 교수), 박형창(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진봉현(전남대학교 교수), 안승범(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수), 이호영(함브르크 항만 주한대표) 등

#### ② 2차 워크숍(안) 3월 중순경. 서울 개최

-주제 : 새만금 신항 물동량 수요추정 및 물동량 증대방안

#### ③ 3차 워크숍(안) (4월 중순경. 서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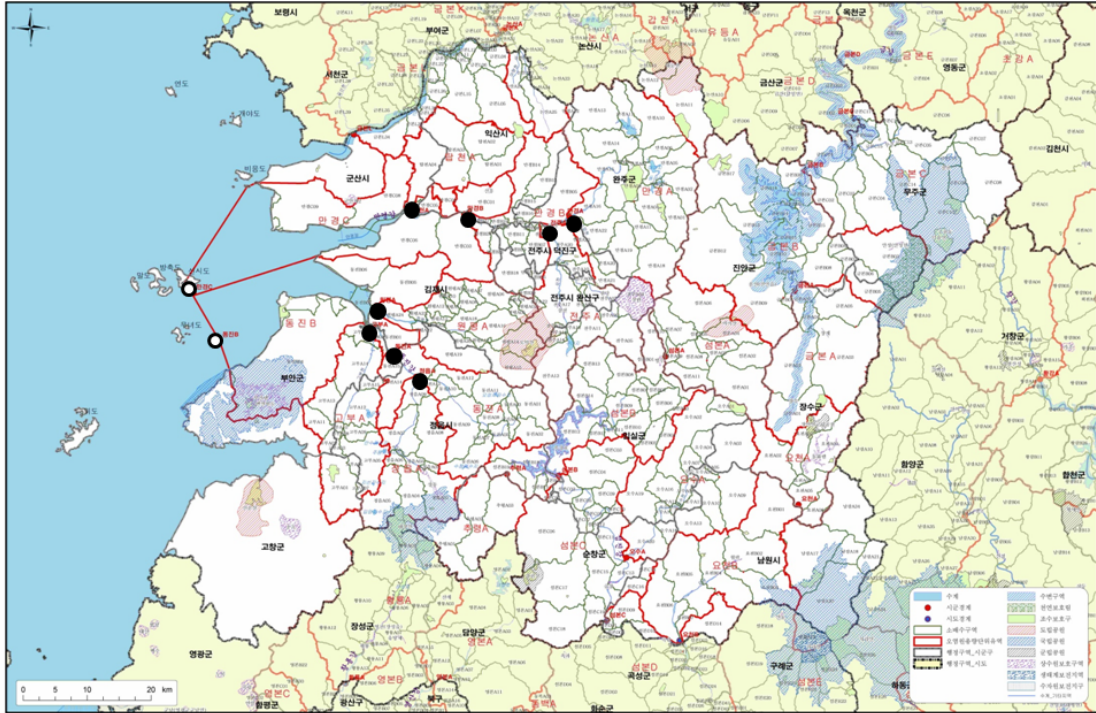
-주제 : 새만금 신항 개발방향

### 4)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sup>4)</sup>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새만금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호 수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필수선결 과제이며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새만금호 및 상류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질관리, 현황자료에 대한 수집정리 및 DB구축, 전문연구자들간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 모니터링 위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구역을 중심으로 만경강 4구역, 동진강 3구역, 원평 1구역의 모니터링 지점이 필요함 (추후 새만금호 2구역 추가필요)

---

4) 새만금 수질오염 모니터링 동향분석 및 연구는 김보국, 장남정박사가 담당



● 수질측정지점    ○ 추가측정지점

○ 모니터링의 전체 개념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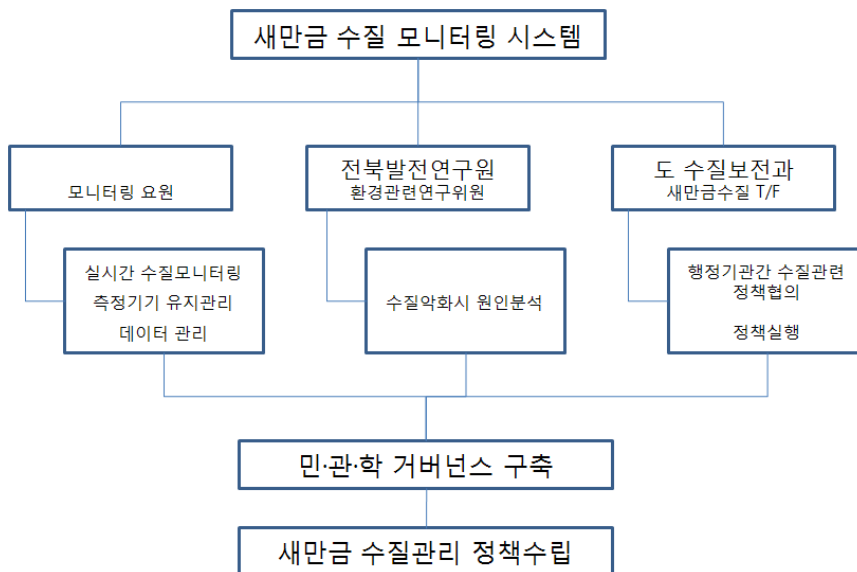
○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새만금 하천수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 \*분석항목: COD, 총인, 총질소, 용존산소, pH, 온도 등
- 수질악화시 신속한 원인분석
- 새만금 수질관리 정책관련 연구수행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책수립
  - \*새만금 생태, 수질, 해양관련 전문가 풀 구성
  - \*전문가 풀 운영을 통한 대책수립

○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시스템 소요비용

- 시스템 설비 : 약 20억
  - \*수질자동측정기 : 2억/대 × 8대 = 16억
- 모니터링 판넬 : 2억
- 설치비 및 기타 소요경비 : 1억
- 유지관리비(기기 유지관리비,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 시스템의 조직 및 구성(안)





### 3. 새정부의 행정 및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대응<sup>5)</sup>

#### 1) 행정혁신의 주요 흐름과 내용

##### ① 특별행정기관 자치단체 이양

-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과감한 자치단체 이양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기능조정과 인력의 이관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의 정책 및 중앙부처의 인력 조정 효과가 기대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은 과급효과 및 기능 조정 등을 위해 시기적으로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의 개편이 마무리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음

##### ② ‘창의혁신’ 개념의 도입과 행정조직 개편

- 행정혁신의 방향과 정책 추진 체계는 약간의 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혁신의 방향을 창의혁신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의식혁신을 통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행정변화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추진
  - 창의혁신 개념에는 지방의 자율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가 관련 업무 165종을 행정안전부로 통합, 조정, 기획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정부는 기능적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음

5) 자치정책연구팀 안완기, 이동기박사 담당

- 현재 각 부처별 세부 조직 및 기능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변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능 및 업무의 성격 등이 통합되고 재조정됨에 따라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필요

- 행정자치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팀장체제에서 과장체제로 전환하고 담당을 팀장(사무관), 본부장을 실장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예컨대, 가칭 지방행정실과 지방재정지역발전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실에 협력정책관, 주민생활기획관, 성과혁신관을 설치하고 지방재정지역발전실에 지방재정기획관, 지방세계관, 지역발전정책관 등으로 개편할 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③ 교육과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 경쟁력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이 통합·조정되어 교육 기능 및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 인력 및 산업인력, 평생교육 인력, 문화 인력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하여 고급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임

- 새로운 정부는 수월성 교육과 영어교육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이 설립 추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육은 평등 개념에서 경쟁 개념으로 변화될 것임

- 이에 따라 지역적 교육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④ 기타

-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국가기반보호체계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가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인수공통전염병 관

리에 대한 체계가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갈등 및 위기 관리에 대한 정책 및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여 갈등 및 위기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2)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따른 운영 방안 및 인적자원관리방안, 예산 운용 방안, 지방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참고표> 전라북도 갈등 및 분쟁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갈등분쟁 조정기구	구성인원	기능	운영 실적	조례 및 근거		비고
분쟁조정 위원회	11인 -실국장5 -민간인6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항 심의의결	없음	전라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도제정94.10.17 도개정00.3.24	조정신청 회피, 행정 협의치중
도정조정 위원회	12인 -실국장	도정의 기본계획시책 관련 자문·심의·연구의결	11회 (5년간)	전라북도정 위원회조례	제정1972.8.1 개정2002.12.13	갈등분쟁 관련전무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	10인 -공무원2 -민간인8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 구제	32회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조례	제정1991.2.21 개정1998.8.14	환경피해 분쟁관련 알선·조정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14인 -공무원6 -민간인8	도내의 건설분쟁 신속 처리 (공사, 보증책임 분쟁 등)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1997.9.3발족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13인 -공무원2 -민간인11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 조정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	없음	건축법 제76조의2	1997.9.3발족	
시군권역별 행정협의회	지자체간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의 사무 일부를 공동의 처리	21건 (5개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8개권행정협의회(권역별6개, 기능별2개협의회)	단순업무 처리한계

② 중앙부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재설계 방안 마련

- 중앙부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고 부처별 조직 및 기능 조정이 완료되면 중앙부처와 상호 일관된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은 중복 기능의 통합 및 경쟁력 있는 정부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적합한 조직관리 개편안이 필요

③ 갈등 및 위기관리 기능 통합운영 : 상생협력

- 중앙부처의 사회 갈등 및 위기 관리 기능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갈등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④ 수월성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정책 방안 마련

○ 교육의 지방 중심 운영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을 구축해야 함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목고, 외국어고 및 자립형사립고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 하고 전북지역의 특성 내지 장점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 방안 마련이 필요

○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새로운 정부에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평생학습의 개념을 고용-복지-인적양성-평생학습 등과 연계된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 전라북도의 실·국에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 및 정책 추진 체계 등을 조정하여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관련 기능의 통합이 필요

- 전라북도 실·국별 인적자원개발사업은 2007년도 1백9십억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도에 4백2십억정도가 투입될 계획임

- 전라북도 실·국의 인력양성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분의 적정성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추진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인력양성 관련 사업 및 예산의 중복성, 정책의 일관성 부재, 통합성 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조정 기능이 필요함

-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고급 전문과정 설치 등 필요. 또한 디자인 산업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 있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및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계고 및 전문대를 정규, 특약 과정으로 분리하여 특약과정을 대상으로 5년제 연계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새정부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3) 전발연의 대응 및 연구과제 제안

#### ①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정책연구과제)

-지방이전이 예상되는 특별행정기관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 전논리를 개발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함

#### ② ‘창의혁신’의 개념과 적용을 위한 조직재설계 연구(정책연구과제)

-‘창의혁신’ 정신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재정비 방안 등을 마련

#### ③ 전북의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방안 연구(정책연구과제)

-새정부의 인재양성전략에 따라 수월성 교육과 평생학습, 과학영재 양성 등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전략 및 특성화 방안 연구 필요

## 4.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획특강6)

### 1) 사업의 의의와 목표

- 21세기 Global 시대의 화두는 단연 ‘여성인적자원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의 촉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에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여성인적자원의 성공적 활용이 주요 정책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음
-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본 주요 기업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들을 초청하여 전라북도 혁신 성장 동력산업 중 식품, 자동차부품 분야의 기업경영 성공전략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함
- 선진 기업들의 성공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여성인적자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 2) 사업의 개요

- 주제 : Global 시대의 전북 핵심 성장동력산업에서의 여성인적자원의 활용방안  
“일본 기업 성공전략-여성의 역할”

#### ① 제1차 특별강연

- 주 제 : “21세기 기업의 성공전략과 여성의 역할”
- 강 사 : 한국후지제록스(FUJI XEROX)(주) 전회장, 현 최고고문  
"Mr. Takasugi Nobuya"
- 일 시 : 2월 21일(목) 14:00~ 17:00
- 장 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2층)

---

6) 여성정책연구소 도세란 소장 담당

## ② 제2차 특별강연

- 주 제 : “식품산업의 성공전략과 여성인력 참여 활성화”
- 강 사 : 한국아지노모토(AJINOMOTO)(주)(조미료,식품), CEO“Mr. Debari Keiji”
- 일 시 : 2월 28일(목) 14:00~ 17:00
- 장 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2층)

## ③ 제3차 특별강연

- 주 제 :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공전략과 여성인적자원 활용 방안”
- 강 사 : 대한칼소닉(CALSONIC)(주)(자동차부품), CEO, “Mr. Asaoka Tadashi”
- 일 시 : 3월 6일(목) 14:00~ 17:00
- 장 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2층)

## II. 전북의 4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연구

### 1. 부품소재산업<sup>7)</sup>

○ 새정부는 산업정책에서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산업전략을 다각화할 것을 밝힌 바 있음. 특히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부품소재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

-대규모 기술개발자금 및 전문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독자적 기술력 확보 지원(부품소재 기술개발)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소재전문 인프라 구축(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기계, 자동차, 에너지 부품 등의 동력부품소재의 정밀화로 세계시장 확보(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 이러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우리 지역의 핵심적 육성분야인 부품·소재에 대한 산업동향 파악과 기술정보의 공유·연구를 통해 지자체에 효과적인 육성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굴, 제시하고자 『부품·소재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요

-주제 : 전라북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일시 및 장소 : 08년 2월 27일 ~ 3월 12일경,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부품·소재 분야별 초청전문가 및 토론자, 전북도 담당자 등

7) 전략산업기획단 이송인박사 담당



일자	발 표 주 제		발 표 자	
2/27	주제 1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세부 1	산업환경 변화와 기계·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전략	이항구 팀장 (산업연구원)
		세부 2	복합소재의 산업적 응용과 정책적 육성방안	박수진 교수 (인하대)
3/5	주제 2 (전자정보융합 부품·소재)	세부 1	전자정보융합 부품·소재의 부상과 전북의 대응방안	신진국 분원장 (전자부품연구원)
		세부 2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IT 융합	이준환 교수 (전북대)
3/12	주제 3 (총괄분야)	전북의 부품·소재 산업 육성방안		이송인 책임연구원 (전북전략산업기획단)

\* 위 일정 및 발표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발표주제별 주요내용

- 주제별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전망
- 신정부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호남권 연계방안
-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 전북의 전략적 육성방향 및 정책과제 등

○ 토론자(안)

발 표 주 제	토론자		
	성명	직위	소속
주제 1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최규재	교수	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이해성	교수	전주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강봉용	센터장	생산기술연구원 전북센터
	노윤식	팀장	(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연구기획팀
	김준형	단장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소재기술지원단
	임철영	대표이사	(주)ICMC
	조한중	팀장	타타대우상용차(주)
	박홍식	부장	(주)테크

주제 2 (전자정보융합 부품·소재)	최대규	교수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성룡	교수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유환신	교수	호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부
	박대희	교수	원광대학교 전기전자정보공학부
	소병훈	이사	(주)오디텍
	박상업	대표	(주)예텍
	박성립	대표	광전자정밀(주)
	김상우	차장	타타대우상용차(주)
주제 3 (총괄분야)	상기 2개 주제분야 전문가 중 7~8명으로 구성		

## 2. 식품산업 육성

### 1) 개념 및 의미

- 식품산업은 농축수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 경쟁력있는 특산품 생산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 등의 측면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융합산업’임
- 식품산업은 기술·연구 인력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득제고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북도 4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임
- 농림부는 광역식품클러스터 사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전환, 전라북도를 그 대상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산업은 새정부 농업정책의 핵심임
- 특히 신정부는 식품산업을 FTA 대책의 핵심으로, 또한 농어촌발전의 단초로서 인식하고 있어 식품산업의 육성여지가 매우 강함

-식품산업은 이미 농림부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 상반기 중 식품산업발전 중

- 합계획 수립 및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상반기 중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 시작과 동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림부와 전라북도 공동의 추진단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한편 지역특산식품 중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09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바, '08년 하반기 중 사업공모가 예상됨

## 2) 신정부의 정책방향 및 전망

-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과 식품산업에 대한 농림부의 로드맵 등을 종합하면 식품산업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기업의 육성 지원

-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식품 R&D를 육성하고, 수출기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식품기업을 유치, 대표적인 식품기업을 육성
- 1시·군 1클러스터를 목표로 임기 말까지 110개소의 중소 식품클러스터를 조성(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식품기업 1,000개 육성)
- 우수 농기업 대상 농업전문투자펀드 확대 조성 및 투자 대상 분야 다각화

###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식품 R&D·교육·컨설팅 지원 및 국내외 식품외식 정보 분석·제공

### ○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 단기적으로는 국내외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외식산업 육성(중국 대장금 모델),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의 원료를 가공하여 중국 및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가공산업 모델 개발이 필요

## 3) 전라북도 및 연구원의 대응방안

○ 신정부 및 농림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세부계획 수립 움직임에 맞추어 전라북도  
와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라북도 차원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안)을 마련하고, 이  
를 농림부의 세부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과업방향 및 내용  
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신정부 및 농림부가 지역특산식품 중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맞추어 관련  
정보 및 동향을 파악하면서 기업, 연구소, 대학, 관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모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4) 식품클러스터 관련 세미나 계획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안)<sup>8)</sup>

##### ① 1차 실무토론회

-일시 : 2월 4일 09:00

-장소 : 전라북도청

-참석자 :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사, 전략산업국장, 식품산업과장 등  
▪ 학계 : 전북대학교 신동화 교수 외  
▪ 관련기관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북발전연구원장 외

##### ②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일시 : 2월 12일 16:00 - 18:00

-장소 : 서울 양재동 AT Center

-내용 : 국가클러스터 개념 및 추진전략, 방향 등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참석자 :

---

8) 전략산업팀 이승형박사 담당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이희설	(주)사이제닉 대표	전북 식품클러스터 자문관
임재각	한국산업기술대학 생명화학과 교수	(주)CJ연구소장
최정호	(주) 대상 연구소장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	전북지역혁신협회장
신현경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국식품과학회장
오상석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서병철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김동수	한국식품연구원장	
윤장배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주재범	한국건설팅협회 전문위원	
이승형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재용	전라북도 식품산업과장	

### ③ 제1차 세미나

- 일시 : 2월 19일 14:00 - 16:30
- 장소 : 전라북도청 중회의실
- 주제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란 무엇인가?(발표 : 주재범 한국건설팅협회)  
국가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성공요인(발표 : 미정)
- 참석자 : 도내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 식품 기업인, 기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 중심 참석(비공개)

### ④ 2차 세미나

- 일시 : 2. 28(목)
- 장소 : 전라북도청
- 내용 : 가공무역 허브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유치 방안
- 발표자 : 이희설 (주)사이제닉 대표

⑤ 3차 세미나

- 일시 : 3. 6(목)
- 장소 : 전라북도청
- 내용 : 지역특화작목 기반의 가공식품 개발 방안
- 발표자 : 미정

⑥ 4차 세미나

- 일시 : 3. 12(목)
- 장소 : 전라북도청
- 내용 : 기능성 식품 개발 방향
- 발표자 : 미정

⑦ 5차 세미나

- 일시 : 3. 19(금)
- 장소 : 서울
- 내용 : 안전성·품질 인증기관 유치 및 연구기반 조성 방향
- 발표자 : 미정

### 3. 신재생에너지산업<sup>9)</sup>

- 새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핵심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즉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는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로 설정
-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의 3색 에너지 육성을 국가적 R&D프로젝트 추진할 것으로 예측됨
  - 기존 반도체·기계 등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 및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5MW급 해상풍력시스템 기술 개발 등 전략적인 집중 투자

---

9) 전략산업기획단 신귀수박사 담당

-수소연료전지의 기술경쟁력·상품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모니터링사업 확대 및 핵심 부품소재 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신규과제와 기술개발센터 등을 설치할 것으로 예측되며,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보급사업도 동시에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전북도에서는 부안을 중심으로 한 수소에너지테마파크의 산업적 활용, 태양광 에너지분야의 신규사업 발굴, 새만금 등지에 풍력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과제 도출을 위한 세미나 계획은 아래와 같음

① 제1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미나

- 일시 : 2008년 2월 26일(화) 오후 3시
- 주제 : 전라북도 및 국가 풍력산업의 현주소
- 발제자 : 기계연구원 박지상 박사
- 토론자 : 전북대 노태수 교수  
          군산대 이장호 교수  
          (주)에드컴텍 박성배 사장  
          에너지관리공단 유경석 지부장  
          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분야 전문가

② 제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미나

- 일시 : 2008년 3월 11일(화) 오후 3시
- 주제 : 신재생에너지 산업 어떻게 특화화 할 것인가 ?
- 발제자 : 에너지관리공단 정수남 실장(031-260-4800)
- 토론자 : 전략산업기획단 신귀수 박사  
          전주대학교 김홍건 교수  
          전북대 양오봉 교수  
          프로파워 황상문 박사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정책담당

③ 제3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미나

- 일시 : 2008년 3월 13일(목) 오후 3시
- 주제 : 전라북도 및 국가 수소연료전지산업의 현주소
- 발제자 :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사업단 김종원 단장
- 토론자 : 전북대 신형식 교수  
          군산대 심중표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연구개발실장  
          프로파워 황상문 박사  
          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 이 중희 센터장

#### 4. 문화관광산업<sup>10)</sup>

○ 인수위에서 관광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구한 내용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되고 있음

① 새만금 관광용지(새만금 T/F 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 새만금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TFT가 검토하고 있으나, 관광용지에 대한 활용방향 및 개발방안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같이 검토하고 있음
- 새만금의 순차적 개발방식과 일괄개발방식 등에 따라 관광용지의 개발방향도 크게 좌우될 수 있으나, 2008년 새만금 내부의 관광용지 개발 용역에 대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별개로 3월 하순 또는 4월 초까지 관광용지 개발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새정부에 보고할 예정임

② 남해안 관광벨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00년부터 시작하여 '09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되는 사

---

10) 문화관광팀 정명희박사 담당



업으로 총 사업비 4조 1,455억원의 대규모 사업임

- 현재까지의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않았으나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새 정부에서 임기 내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사업으로 선정함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남해안의 관광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는 남해안 관광권과 관광산업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으며, 특히 2009년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관련하여 서해안권에 내려오는 관광객을 두고 전라남도의 서남해안권과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주변 지역(고군산 국제관광지 및 부안군 일대)에 대한 국가적인 선지원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2008년 군산방문의 해를 도차원에서 적극지원하고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군산과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해양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③ 한반도 대운하의 관광이용방안 검토(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 물류분야에서 대운하 개발의 경제적 논리가 어긋남에 따라 대운하 주변을 이용한 관광이용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이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음
-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관광수요예측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검토내용의 신뢰도는 매우 낮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안동 카톨릭상지대는 30일“한반도 대운하를 이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적 대응방안을 논의함
- 전라북도 입장에서 대운하의 관광효과 또는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으나 논의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④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관광(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활용방안)

- IT를 이용한 관광활동 지원(촉진)방향에 대한 검토내용은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음

○ 2008년 문화관광부 주요 추진정책

① 다문화 정책

-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18만명, 외국인 근로자 40만명,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2007년 기준) 한국도 점차 다민족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통합기능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7년 12월 문화관광부 내 다문화 정책팀이 개설됨에 따라 2008년에는 다문화 정책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결혼이주민의 수는 3,667명으로 전국의 3.9%를 차지하였으나 인구대비로는 매우 높은 수치임. 또한 2007년 통계는 산출되지 않았으나 역시 많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문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지표 산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②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2008년 문화관광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로 2008년 1월 문화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설문을 실시함. 분석결과 젊은 층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장래희망’과 ‘먹거리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라북도는 문화관광부의 시책에 맞춰 전통문화와 음식문화를 콘텐츠화 하는데 집중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정책은 디자인산업의 역량 강화로 구체화 되고 있으며, “디자인 코리아”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적 디자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Ⅲ. 전북의 2단계 성장동력산업 연구

#### 1. 고령친화산업<sup>11)</sup>

##### 1) 개념과 의미

- 고령친화산업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육, 교통, 식품, 장묘, 의류 등 13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은 국가의 재정악화, 경제 저성장과 함께 고령자의 건강, 재무 및 생활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적인 차원과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산업으로 연결하면 시장규모 및 고용유발 효과 등이 무궁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의 하나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06년 10조원을 도달하였고 2010년 31조원, 2020년 11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도 2010년 45만 명, 2020년 69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연금 및 보험수혜의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실시('08. 7) 등 공공복지 확충과 노인의 경제력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기존의 노년층과 차별화 된 소비양태로 노후를 대비하는 베이붐 세대(5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출생) 소비층이 가세하면서 2010~2020년에 걸친 10년간의 실버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함(대한상공회의소, 2007)
- 특히 중국은 2005년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1%(1억 4천5백만 명)에서 2025년에는 18.4%(2억 8천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고가의 고령친화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과 기술수준이 저급한 중국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경우, 중국은 고령친화용품 거대 수출시장으로 상존

11) 여성정책팀 조경옥박사 담당

## 2) 새 정부 정책방향과 전망

- 고령친화산업은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나 아직 시장 진입 초기단계에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기업인식이 저급한 수준에 있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07. 7월 시행)』 제정

-동법에 의거 '07년 12월에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함. 이로써 고령친화산업의 본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음

- 차기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192개 국정과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는 능동적 복지를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어 노인용품에 대한 산업화와 내수시장 전망이 밝음

- 산자부에서는 '05~ '07년을 고령친화산업 준비기로 보고 제도정비, 표준화 및 안전, R&D 및 전문 인력양성에 주력을 해왔으나 '08~'10년을 고령친화산업 시장활성화 시기로 보고 기술개발 추진,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에 주력할 계획임

- 산자부에서는 노인용품 이외에 향후 전망이 있는 산업으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산업과 IT·BT·NT를 연계한 신기술 융합제품의 개발, 보급이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핵심과제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전망과 계획아래 산자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음

### ①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사업』

-고령친화모델 지역(원주, 의성, 부여, 순창)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예정. 본 사업의 예산은 총 11억 5천(지방비 제외)으로 자립형(원주)과 지원형(의성, 부여, 순창) 가운데 시범적으로 2곳을 지정 할 계획

-순창은 당초 사업안을 제안한 지역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 경합지역(의성, 부여)의 경쟁으로 인하여 절대 안정권으로만 보기는 어려움

## ② 고령자 주택개조사업

-고령친화산업 14개 분야 가운데 주택분야는 건교부가 추진부서로 사업규모 및 국고 지원 사업비 액수가 많아 주력 경쟁분야임

-전남이 친환경 바이오 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 분야로는 보기 어렵고 주택의 기능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령자 주택개조사업은 “고령자주거안정 지원법”개정 후 지원가능한 분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제정 및 규정 확정 등의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전북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음

## ③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건립

-’07년도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지원확정이 성남과 대구로 결정되는데 이어 ’08년도 체험관 구축사업이 1개소 추가됨. 본 사업의 사업비는 ’08년도 60억원이 편성되어있으며 07년도에는 2개소 구축사업비로 30억원이 지원되었음

-공모는 5월 예정인 가운데 광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요구로 1개소 추가가 확정됨.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은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체험관을 수요창출의 필수요소로 간주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3) 전북도의 대응방안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이미 국가지원과 기반을 구축 중인 타 지역(경남대구, 경기성남, 강원원주, 충북오송)과의 경쟁구도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를 선점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 충실하고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인 식품, 한방, 헬스케어 기기, 첨단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과 실버산업 관련 모태산업체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전환시켜 신규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전북을 실버산업의 메카로 육성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2008년에 지원하는 각종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북을 고령친화산업 선도지역으로 이미지화할 필요 있음

#### ①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공모사업 참여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구축은 지역이 고령친화산업에 관련 된 전체적인 사업 전개하는 데 중요한 Seed money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08년 1개소 추가확대에 전남과 광주가 정치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여 선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07년도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지정 과정에서도 당초 사업 계획은 천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으나 공모사업 진행 결과 최종 선정지역은 성남 등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북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 따라서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일정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자료 파악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고 수시로 중앙부처의 정보를 파악, 보건 분야 재정운용 방향과 '09년도 고령친화산업과의 연계된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파악이 필요
- 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지역에 유치할 경우 체험관 신축에 대한 재정부담(지방비 부담)이 크므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활용계획을 사업계획 작성시 제안할 필요 있음

#### ② 산자부 『 '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참여

- 이외에 산자부가 지원하는 『 '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의 아이টে을 찾아 공모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10억원이 지원되며 신규과제로 10~13개를 선정 지원 함. 특히 지역 간 시너지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부문을 신설, 신규사업 선정 우대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이슈를 선점할 필요 있음

#### 4)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북이 추진 가능한 분야의 사업선정과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육성전략 등에 대한 연구과제가 필요함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사업지원의 생성과정은 정부가 단독으로 만들어 지역에 배분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아이템과 콘텐츠를 만들어 정책으로 혹은 사업으로 구체화, 현실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전북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한방산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추진하도록 함

## 5) 세미나 계획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참여분야 확정,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정확하게 발주하기 위한 사전학습 필요

### ① 고령친화산업 관련 세미나

- 일시 : 2008년 2월 27일
- 기조발제 :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 주제발표1 : 고령친화산업 시장성과 미래수요 전망  
이병희(한국은행조사국 산업지역팀 과장)
- 주제발표2 : 고령친화산업 특화 및 개발전략: 성공사례의 벤치마킹과 합의  
강병익 (충남고령친화 RIS사업단 단장)
- 토론자 : 성혜영(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고령친화산업팀장),  
주동황(고령화사회희망재단운영위원, 광운대 교수)  
권대규(전북대학교 노인감각운동증진연구센터장)  
정의정(고령친화산업화지원센터 팀장)  
한중현(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신귀수(전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책임연구원)

### ②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가 워크샵

-일시 : 2008년 3월 7일

-주제발표1 : 전북의 고령친화산업 육성분야 및 전략

-주제발표2 : 고령친화산업추진체계 및 용역내용 수립

## 2. RFT 산업과 과학창조도시

### 1) 과학창조도시 연구사업 및 RFT 육성전략 세미나<sup>12)</sup>

- 새정부에서는 기술융합사업을 차세대 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는 기술융합을 활용하여 의료, 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신제품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예측
- ‘과학창조도시 건설사업’은 중장기 전라북도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미래비전 2020)」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나, 이 보고서에서 과학창조도시에 대한 아이디어 수준의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과학창조도시의 구체화된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전라북도(과학산업과)에서는 「과학창조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그러나 이 용역의 계획대상인 과학창조도시 건설방향 및 용역 추진방안 등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있음.
- 실효성 있는 「과학창조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추진 이전에 새 정부의 과학도시 건설 정책 및 RFT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동향 등을 바탕으로 과학창조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RFT산업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고, RFT산업의 현황 및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한 전북의 RFT산업 육성 방향 및 과학창조도시의 조성 방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향후의 계획 수립이 필요

---

12) 산업경제팀 김진석박사 담당



○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과학창조도시 건설 및 RFT산업 육성 관련 용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미나를 수행하고자 함

○ 세미나 개요

① 1차 세미나

-일시 : 2008. 2. 12(화) 14:00 ~ 13(수) 15:00

-장소 : 정읍시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대회의실

-행사주제: 「과학창조도시 건설용역」 추진방안 수립

-참석대상: 13명(도내 전문가 및 전라북도·정읍시 관계 공무원 등)

분 야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RFT	김종일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윤권하	원광대학교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	소장	
	한창선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연구전략팀장	
	김동호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연구실장	
	이면주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연구원	
과학도시	이은경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성태경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산업정책	김진석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 연구팀장	
	박경수	전략산업기획단	기획실장	
공무원	이금환	전라북도 전략산업국	국장	
	조성환	전라북도 과학산업과	과장	
	박상기	전라북도 과학산업과	담당	
	박종기	정읍시 과학산업과	과장	
계	<b>13명</b>			

## ② 2차 세미나

-일시 : 2008. 2. 21(목) 14:00 ~ 17:00

-장소 : 서울

-참석대상: 15명 내외(미정)

: SERI, KIET, STEPI, KISTEP, 원자력학회 등 관련 전문가

: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등

: 전라북도·정읍시 관계 공무원 등

## 3. MFT산업<sup>13)</sup>

### 1) 사업의 개념과 의미

○ 미생물융복합기술(MFT)은 미생물자원을 식품, 의약, 환경, 화학 등의 최첨단 기술과 융합시켜 새로운 물질의 합성이나 기술 또는 방법을 개발하는 첨단 복합기술로서 고부가가치의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갖는 기술로 산업육성 효과가 높음

○ 국내 미생물 관련 시장은 '05년 현재 약 7,784억원 수준이며, 세계 시장규모도 '05년 100억달러에서 2012년 194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전북의 경우 발효식품산업을 비롯한 농약, 비료, 퇴비, 사료 등 농축산분야에서 미생물융복합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향후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처리 및 에너지, 의약분야 등의 응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미생물유전체 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발족하여 기술연구와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사업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음

---

13) 전략산업팀 이승형박사

## 2) 전북도의 대응전략과 세미나 계획

○ 전북은 차세대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생물융복합산업(MFT)을 전라북도의 2단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생물융복합산업(MFT)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중

○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과제계획서 작성과 타당성 검토, MFT산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과 논리 개발 등을 목표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MFT산업육성 기본구상 마련 관련 전문가회의 2회 추진(08. 1. 18(금), 1. 23(수))

-관련기관 및 업체방문(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전주대학교 EM연구단, 전북대학교, 주)지니스)

○ 특히, MFT산업의 개념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MFT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전북의 MFT산업 육성 방향 및 전략과제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MFT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FGI(안)

-목표 : MFT사업의 개념과 방향, 현재까지의 연구동향,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정리하고 기본계획 용역의 방향과 목표 등을 정립하기 위한 예비토론

-방식 : ① 8~10명 내외의 도내외 전문가 그룹을 고정패널로 하여 총 3회 이상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사업의 방향 및 과제 도출 ② 각 세미나에는 1인 이상의 전문가가 토론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의 의미로 간략한 발제를 실시 ③ 총 5차의 전문가 FGI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최종결과를 확정

-경과 : 이미 1월중에 2회의 토론회 진행. 3월까지 총 5회의 전문가 브레인스토밍과 2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의 개요와 방향 확정

### ① 3차 전문가 토론회

-일시 : 2008. 2. 4(월) 14:00 - 16:00

- 장소 : 전라북도청 12층 소회의실
- 주제 : 국가생명공학 정책 방향 및 이슈
- 발표 : 현병환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고정패널 : 송재준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김동호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최종일 박사(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 신동화 교수(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 정용섭 교수(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 양문식 교수(전북대학교)
  - 장원길 교수(전북대학교)
  - 김영규 교수(전주대학교 EM 연구단)
  - 한동민 교수(원광대학교)
  - 한갑훈 교수(우석대학교)
  - 권태호 소장(전주생물소재연구소)
  - 강수기 원장(전주생물산업진흥원)
  - 이은미 단장(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이승형 박사(전북발전연구원)
  - 임병락 박사 (주) H&BT KOREA기업부설 연구소)
  - 박종진 박사((주)삼양제넥스 생명공학연구소)
  - 한금수 소장(순창장류연구소)

## ② 4차 전문가 토론회

- 일시 : 2008. 2. 13(수) 14:00 - 16:00
- 장소 : 전라북도청
- 주제 : MFT산업 육성 기본방향 설정
- 고정패널 : 위와 같음

## ③ 5차 전문가 토론회

- 일시 : 2008. 2월 20일(수) 14:00 - 16:00
- 장소 : 전라북도청

-주제 : 전라북도 MFT산업 육성분야 설정

-고정패널 : 위와 같음

#### ④ 1차 자문회의

-일시 : 2008. 2월 26일(화) 14:00 - 16:00

-장소 : 전라북도청

-주제 : MFT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전라북도 MFT산업 육성분야 설정

-자문위원 : 이기준 교수

강사옥 교수

유상렬 교수(서울대학교)

김영준 교수(고려대학교)

전체옥 교수(경상대학교)

강대경 교수(단국대학교)

김형권 교수(카톨릭대학교)

이우일 교수(건양대학교)

박명수 교수(안양과학대)

김희식 박사

윤정훈 박사

류충민 박사

손정훈 박사

이승구 박사

유익동 박사

신기선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준현 박사(대상(주) 발효연구팀)

정창민 박사(배상면주가(주))

김광수 부장(삼양제넥스(주) 생명공학연구소)

#### ⑤ 6, 7차 전문가 토론회

-일시 : 2008. 3월 5일(수), 3월 12일(수) 14:00 - 16:00

-장소 : 전라북도청

-주제 : 전라북도 MFT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과업내용 작성

## ⑥ 2차 자문회의

-일시 : 2008. 3월 5일(수), 3월 12일(수) 14:00 - 16:00

-장소 : 전라북도청

-주제 : 전라북도 MFT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과업내용 및 방향

## 4. 항공우주산업<sup>14)</sup>

- 항공우주산업은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 항공우주 산업분야는 군산, 전주 등의 기계부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항공산업단지조성, 우주산업의 중추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항공우주 주요 부품 공급기지 조성 등을 추진
-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산업 등 다른 산업에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음

■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 및 관련 부속기기류, 지상지원장비 등을 생산하고 정비 산업

-비행기 고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의 연구, 조립 및 생산

-우주발사체, 항공우주선, 인공위성, 유무인 우주선의 연구, 조립 및 생산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의 조립 및 생산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생명, 의료, 식량 등)의 개발

-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세미나

### ① 제1차 세미나

14) 전략산업기획단 이송인박사 담당

- 일시 :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 주제 : 우리나라 및 전라북도 우주산업의 현주소
- 발제자 : 천문연구원 이재진 박사
- 토론자 :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노태수 교수  
 군산대학교 장세명 교수  
 항공우주연구원 안성민 박사  
 전주대 김진수 교수

### ② 제2차 세미나

- 일시 : 2008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 주제 : 항공산업의 발전 동향
- 발제자 : 경상대학교 조태환 교수
- 토론자 : 전북대 유기완 교수(270-4286)  
 전략산업기획단 신귀수 박사  
 항공우주연구원 최성욱 박사 (스마트무인기 실무자)  
 충남대학교  
 (주) KHE 이태무 전무

### ③ 제3차 세미나

- 일시 : 2008년 3월 18일(화) 오후 3시
- 주제 : 항공우주산업은 과연 황금알을 낳는가?
- 발제자 : 항공우주사업단 실무자
- 토론자 : 전북발전연구원, 전략산업기획단, 한국항공관계자, 스마트인프라 김형윤 대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김준형 단장

## 5. 디자인산업<sup>15)</sup>

### 1) 새정부의 디자인 정책과 전망

- 새정부의 디자인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의 정부와 가장 차별화된 사업이자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됨.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자인산업은 문화(예술), 건축, 도시, 산업 등 포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새정부의 디자인 정책은 국가디자인위원회(지역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공공디자인 확산을 통한 창조적 생활공간 조성을 핵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도시의 공공 건축 자체를 디자인 개념으로 보는 하드웨어 분야로 구분됨
- 이같은 디자인 개념의 급부상은 문화분야는 공공디자인 및 디자인 개념의 확산으로, 산업분야는 디자인 적용산업 등의 부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전북도에서는 ① 디자인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 ② 공공디자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③ 디자인 관련산업 육성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관광부에서는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방향 수립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담 공간문화팀의 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박람회, 심포지움 개최 및 사례·정책 등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개설을 준비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제정 추진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및 “디자인 기본법”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수위에 보고된 “디자인코리아2020”은 문광부가 디자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산자부, 행자부, 건교부 등의 반발이 있음
  - 타 부처와의 업무 영역 중복 문제가 제기. 즉 산업자원부(산업디자인분야), 행정자치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의 디자인 관련 업무를 문광부소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추진중

15) 환경지역연구팀 장성화박사 담당



- 공공디자인 담당 부처의 선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문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디자인은 도시계획, 관광, 산업, 행정 등 자치단체 업무의 거의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음. 또한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도 매우 다양하고, 관련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조율하고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디자인 코리아 2020” 요약

① 디자인 정책 추진체계 정비

- 국가 디자인정책의 효율증대 및 일관성 있는 디자인 종합정책을 통한 디자인 강국의 실현
- 국가디자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및 디자인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 디자인정책 담당 산하기관 정비 및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디자인정책국(문화관광부내) 신설

② 디자인 창작기반 마련

- 민간주도의 장기적인 디자인 발전 인프라 구축
-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의 설립으로 민간영역의 역할 촉진하고 당인리 디자인 박물관 설립을 통해 디자인 전시공간 확충
- 디자인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디자인 분야의 체계 정립과 창의성 확보는 물론 분야간 연계효과 모색

③ 일상공간의 문화적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Design for Business에서 Design for Life로, ‘건설공사’에서 ‘디자인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공모 시행 : 컨설팅 비용 및 전문가 연계지원)
- 공공디자인 상 제정 및 공공디자인 엑스포 실시 등으로 공공디자인의 경쟁 유도 및 학·연·산의 연계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개발·보급

④ 디자인 기초역량 강화 및 핵심 전문인력 양성

- 보통교육과정에서의 디자인 교육강화로 디자인 기초역량 강화
- 디자인 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 우수 디자이너 양성 및 역량 제고 등을 통해 고급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⑤ 디자인 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디자인보호제도 및 디자인산업의 생산·유통구조 개선
- 디자인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디자인 문화 플라자 조성

⑥ 디자인 R&D 역량 강화

- 디자인기술 연구와 문화연구의 통합, 한국적 디자인 연구기반 마련 등을 통한 장기연구 지원

---

## 2) 패키징 산업 모델

○ 디자인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위해 이탈리아 볼로냐 모델의 포장산업(패키징) 등 연구 필요

-포장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넓으나, 식품산업에서는 분류와 인증을 거친 농산품을 자동포장기계를 통해 포장하는 패키징, 패키징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포장기계산업 등이 있음

-포장산업은 나노기술과 청정기술 등이 적용되는 최첨단 산업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품의 유지와 유통을 가능케 하는 기간산업.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포장기술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며, 포장산업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삼각김밥의 비닐 포장에도 편리함과 위생을 고려한 정교함과 기술력, 아이디어를 필요로 함.

-현재 국내 고급포장기술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집적화 및 지원을 요구할 필요 있음

○ 국내 포장산업은 일반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에 이르지만 최첨단기술은 5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중국의 포장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포장산업의 첨단화, 고급화, 집적화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포장산업의 이미지를 선점한다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포장산업이 파생시킬 <패키지 디자인>은 소비자의 최종적인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산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전북의 한지산업, 문화예술적 감성 등이 패키지 디자인에 커다란 장점임

○ 포장기계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포장기계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포장기계 관련 기술업무 유치 뿐 아니라 관련산업 업체들과의 집적화를 통한 전북지역 및 인근 타지역내 수요업체들에 포장산업 전반적인 공급 기반 마련

-선진국의 경우 포장기계산업의 비중이 일반기계산업 중 25%정도로 산업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에서는 포장기계산업을 '기계공업 10대육성산업'으로 채택하는 등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인식. 이에 환황해권 지역인 전북지역은 대중국과의 무역 및 국내 식품가공업체들의 포장산업을 이끌어 갈 집적화 단지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포장산업에 관련 기술, 유통, 정보 등의 공동활용 등을 통한 집적효과의 극대화

### 3) Smart Packaging 기계 집적화 단지 조성

○ 포장기계 관련업체의 집적화로 전북지역의 제품 생산업체들의 단지 활용을 통한 생산 가치 극대화를 얻을 수 있으며 포장기계와 연관산업 등의 발전을 기대

-포장기계 부품업체 및 포장산업 관련 업체등의 100여개의 업체 유치를 목표로 30만 평 규모의 부지조성

-집적화 단지 내 포장기계 연관기업 입주를 위한 공장신축, 이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전북지역 내 전체 제조업 중 17.2%를 차지하고 있는 음 식료품 제조업체들의 각종 제도 및 시설, 장비 활용 등의 혜택을 통한 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 성장 지원

○ 각종 산업용자재, 유통시설의 집적화 대형화를 통한 업체의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포장산업의 기초기반 업무 지원

#### 4) 포장기계 R&BD 센터 건립 사업

- 포장기계 제조 및 관련 부품업체의 기반기술 및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제품의 품질수준과 비용절감 등을 도모함으로써 포장기계산업의 경쟁력 향상기반 구축
- 대부분의 포장기계업체들은 개발·생산한 제품의 물리시험이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가 거의 없고, 각 개별업체가 이를 보유하는 것은 경제성도 크지 못하므로 포장기계 R&BD센터 등을 통해 이러한 설비들을 공동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임.

- 포장기계업체의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기관 및 대학 등의 연결을 통해 포장기계업체의 신제품개발력과 기술수준 향상도모와 신기술의 조기 실용화
- 포장기계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수요업체에 대한 납품을 알선할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지원 실시
- 농산물 등의 포장 및 검사를 대행하여 생산자의 포장과정 및 품질검사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 5)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계획

##### ○ 세미나 개요

- 목표 : 21세기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자인산업에 대한 동향 파악과 관련 정보의 공유·연구를 통해 전북의 디자인산업 육성 방향과 과제를 발굴·제시
- 일시 : 08년 3월중 15:00~18:00
- 장소 : 전북도청 중회의실
- 발표자

구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비고
1주제	국내·외 디자인 이슈 (신정부 디자인 정책 관련)	이순종 (이주명)	서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2주제	디자인산업의 현황과 전망	문준기	MI디자인 대표
3주제	전북 디자인산업 육성 방안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홍정표	전북대학교 교수

-발표주제별 주요내용

- 국내·외 디자인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이슈
- 신정부의 디자인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
- 국내·외 디자인산업 관련 동향 및 향후 전망
- 전라북도의 디자인산업의 실태와 육성 방안

◆ 토론자(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좌 장	김태호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토 론	이안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 송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김상규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대표
	최 송	디자인평론가, 간판문화연구소 소장
	이금환	전라북도 전략산업국장

## IV. 기타 주요 정책전망와 대응

### 1. 생태탐방로<sup>16)</sup>

#### 1) 새정부의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우선 '08년 중에 퇴계 이황 등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행문 배경이 된 「퇴계 오솔길(안동시 소재)」을 대상으로 시범조성사업을 실시하고, '0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게 됨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626억원(국비 760억원, 지방비 866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08년 시범조성사업을 거쳐 '09년에 20개 구간(100km)을 조성하고, '10년부터는 매년 60개 구간(300km)씩 조성하여 '17년까지 총 2,500km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탐방로 추진상황은

-안동시 퇴계오솔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감. 하반기에 착공예정

-새정부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 있으며 인수위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 전라북도 생태탐방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중임. 환경부 추진계획과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 선도적으로 생태탐방로를 구축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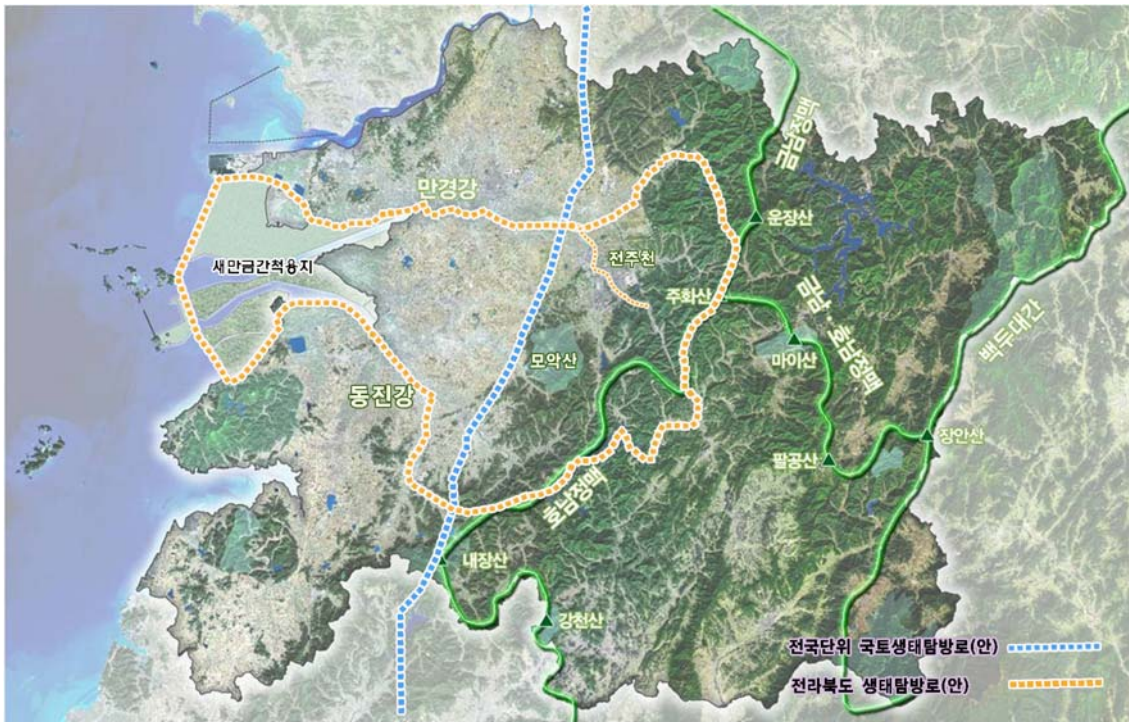
-선도적으로 생태탐방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고, 이 경우 국비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16) 환경지역연구팀 김보국박사, 장남정박사 담당

- 전북의 경우 새만금, 동진강, 만경강을 잇는 순환고리형 루트를 제안할 경우 정부 차원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새만금, 만경강, 동진강을 잇는 순환고리형 루트 : 약 250km

-전주권, 변산반도, 섬진강권과 연계할 수 있는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 기타 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대응

### 1)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안전운전체험센터 전북 유치

- 새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우선구역내 보행시설물 확충(기 추진사항), 교통사고 원인 중 인적요인 관련 사고감소를 위한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설치 (2008-2012) 등
- 정부 차원에서 설치되는 안전운전체험센터를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보전용도 대상토지의 규제완화방안 연구

- 한국은 이미 산업용지 부족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를 위해 농지 및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개발가능지 확보를 위해 도시주변의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의 활용방안 강구 필요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보전용도 토지의 합리적 조정,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준보전산지 전용허가 탄력적 적용
- 2008년 상반기 새만금토지이용계획에의 영향력,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변경 필요성 등 개발저해 요인과의 관계성 분석 필요

## 3) 산학연계형 현장기술인력 공급 원활화

-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직 인력의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제 교육과정 도입
- 호남권(전북권) 기술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2008년중 기술사관학교 설치 운영을 위한 연구(과제)용역이 실시될 필요 있음

## 3. 1시군 1프로젝트와 전발연의 대응

- 전북도에서 설정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전북도청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연구 및 토론회 등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1시군 1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특성화 전략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발연내 연구자 및 도내 전문가그룹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 : 원도연소장(정명희박사)
-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 정명희박사
- 익산 식품전용 산업단지 조성 : 이승형박사



- 정읍 방사선융합기술 산업밸리 : 김진석박사
-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 이성재박사
- 김제 농기계 부품클러스터 조성 : 이동기박사
-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모영환박사
-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조성사업 : 조경욱박사
-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 장성화박사
- 장수 말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 이강진박사
- 임실 치즈산업 밸리 조성 : 이창현박사
- 순창 장류산업 밸리 조성 : 안완기박사
-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 나상균박사
- 부안 해양관광신도시 건설 : 박형창박사

\*새만금 환경오염 전문모니터링 : 김보국·장남정박사

<참고표1> 전북발전연구원의 새정부 출범 대응 연구과제 현황

분류	연구과제	연구기간	과제방식
광역경제권 (TFT)	광역경제권에 따른 전북 핵심특화산업 연구	2~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전북 부품소재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호남권 항공우주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호남권 서해안관광산업의 광역화 방안 연구	2~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광역경제권 전북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2~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광역경제권에 따른 전북의 공항전략 연구	2~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새만금사업	새만금 사업의 변화에 따른 기본방향 연구	-	세미나 참여(공동연구)
	새만금신항 조기개발의 논리개발과 방안	2~4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새만금 상류 수질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연구	3~4월	사업제안 보고서
행정혁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응연구	2~3월	정책연구과제
	‘창의혁신’과 지방행정조직 재설계 연구	2~3월	정책연구과제
	전북의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방안 연구	2~3월	정책연구과제
부품소재	부품소재산업의 변화와 전북의 대응전략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식품산업	식품산업의 기본방향과 전북의 대응전략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신재생	국가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전북 대응전략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고령친화	새정부 고령친화산업 전망과 대응방안 연구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과학도시	과학도시 전략과 전북의 추진전략 연구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RFT산업	RFT 산업의 전망과 전북의 특화방안 연구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MFT산업	MFT 산업의 전망과 전북의 특화방안 연구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항공우주	항공우주산업 현황과 전북의 발전방안 연구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디자인	디자인산업의 전망과 전북의 발전방안 연구	3~5월	세미나 중심 정책연구

\*세미나의 결과물은 정책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것임

〈참고표2〉 전북발전연구원의 새정부 출범 대응 세미나(안) 산업별

N O	일시	구분	세미나 주제	장소	주관	담당
01	02.27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대응전략 세미나(1차)	전발연	전북도·전발연 공동주관	원도연 박사
02	03.05		광역경제권 대응전략 세미나(2차)	전발연	전북도·전발연 공동주관	모영환 박사
03	03.12		광역경제권 대응전략 세미나(3차)	전발연	전북도·전발연 공동주관	모영환 박사
04	미정		광역경제권 호남지역 연구원 세미나	-	전발연·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원도연 박사
05	02.29	세만금사업	세만금 개발방향 및 기본컨셉 토론	서울	도시설계학회·전북도·전발연 공동	원도연 박사
06	03.04		세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1차)	서울	공동(도시학회)	원도연 박사
07	03.07		세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2차)	서울	공동(도시학회)	원도연 박사
08	03.11		세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3차)	서울	공동(도시학회)	원도연 박사
09	03.14		세만금 개발방향 종합토론	서울	공동(도시학회)	원도연 박사
10	02.21	특별강연	세만금 신항 조기개발안 세미나(1차)	군산	전발연	박형창 박사
11	3월중		세만금 신항 조기개발안 세미나(2차)	서울	전발연	박형창 박사
12	4월중		세만금 신항 조기개발안 세미나(3차)	서울	전발연	박형창 박사
13	02.21		21세기 기업의 성공전략과 여성의 역할	전발연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도세란 박사
14	02.28		식품산업 성공전략과 여성참여 활성화방안	전발연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도세란 박사
15	03.06		자동차 부품산업 성공전략과 여성자원 활용방안	전발연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도세란 박사
16	02.27	부품소재산업	산업환경변화와 기계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전략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이송인 박사
17	03.05		전자정보융합 부품소재의 부상과 전북대응전략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이송인 박사
18	03.12		전북의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종합토론)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이송인 박사

N o	일시	구분	세미나 주제	장소	주관	담당
19	02.0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위한 실무토론회(1차)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참여)	이승형 박사
20	02.1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울	전라북도(전발연 참여)	이승형 박사
21	02.19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개념과 성공전략 토론회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참여)	이승형 박사
22	02.28	식품산업	가공무역 허브 조성사업 및 기업유지방안 세미나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23	03.06		지역특화작목 기반의 가공식품 개발 방안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24	03.12		건강기능성 식품개발방향과 추진전략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25	03.19		안전성 품질, 인증기관 유치 및 R&D 기반조성	서울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26	02.26		전라북도 및 국가 풍력에너지 산업의 현주소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신귀수 박사
27	03.11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산업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신귀수 박사
28	03.13		전라북도 및 국가 수소연료전지사업의 발전방안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신귀수 박사
29	02.27	고령친화산업	국내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전망	전발연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옥 박사
30	03.07		전북의 고령친화산업 특화 육성분야와 전략	전발연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옥 박사
31	02.12	과학창조도시	과학창조도시의 개념과 기본방향 세미나(1차)	정읍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김진석 박사
32	02.21		과학창조도시의 개념과 기본방향 세미나(2차)	서울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김진석 박사
33	02.04		국가생명공학 정책방향 및 이슈 세미나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참여)	이승형 박사
34	02.13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4차)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35	02.20	MFT 산업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5차)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36	02.26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자문위원회(1차)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37	03.05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6차)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N O	일시	구분	세미나 주제	장소	주관	담당
38	03.12	MFT 산업	MFT 산업 진부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7차)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39	03.05		MFT 산업 진부의 특화방안 자문위원회(1차)	전북도청	전라북도·전발연 공동	이승형 박사
40	02.20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진부의 특화발전방안(1차)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이송인 박사
41	03.06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진부의 특화발전방안(2차)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이송인 박사
42	03.18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진부의 특화발전방안(3차)	전발연	전략산업기획단·전발연 공동	이송인 박사
43	3월중	디자인산업	디자인산업의 정책동향과 진부의 대응방안(1차)	전발연	전발연	장성화 박사
44	3월중		디자인산업의 정책동향과 진부의 대응방안(1차)	전발연	전발연	장성화 박사

\*세미나의 날짜와 폐널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표> 새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발연 세미나 기획안(날짜별)

일시	세미나 주제	장소	담당
02.04	국가생명공학 정책방향 및 이슈 세미나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2.0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위한 실무토론회(1차)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2.12	과학창조도시의 개념과 기본방향 세미나(1차)	정읍	김진석 박사
02.1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울	이승형 박사
02.13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4차)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2.19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개념과 성공전략 토론회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2.20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5차)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2.20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북의 특화발전방안(1차)	전발연	이송인 박사
02.21	21세기 기업의 성공전략과 여성의 역할	전발연	도세란 박사
02.21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안 세미나(1차)	군산	박형창 박사
02.21	과학창조도시의 개념과 기본방향 세미나(2차)	서울	김진석 박사
02.26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자문위원회(1차)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2.26	전라북도 및 국가 풍력에너지 산업의 현주소	전발연	신귀수 박사
02.27	광역경제권 대응전략 세미나(1차)	전발연	원도연 박사
02.27	국내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전망	전발연	조경욱 박사
02.27	산업환경변화와 기계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전략	전발연	이송인 박사
02.28	가공무역 허브 조성사업 및 기업유치방안 세미나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2.28	식품산업 성공전략과 여성참여 활성화방안	전발연	도세란 박사
02.29	새만금 개발방향 및 기본컨셉 토론	서울	원도연 박사
03.04	새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1차)	서울	원도연 박사
03.05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자문위원회(1차)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3.05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6차)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3.05	전자정보융합 부품소재의 부상과 전북대응전략	전발연	이송인 박사
03.05	광역경제권 대응전략 세미나(2차)	전발연	모영환 박사
03.06	자동차 부품산업 성공전략과 여성자원 활용방안	전발연	도세란 박사
03.06	지역특화작목 기반의 가공식품 개발 방안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3.06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북의 특화발전방안(2차)	전발연	이송인 박사
03.07	전북의 고령친화산업 특화 육성분야와 전략	전발연	조경욱 박사
03.07	새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2차)	서울	원도연 박사
03.11	새만금 개발방안 및 산업비전(3차)	서울	원도연 박사
03.11	신재생에너지산업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전발연	신귀수 박사

일시	세미나 주제	장소	담당
03.12	전북의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종합토론)	전발연	이송인 박사
03.12	MFT 산업 전북의 특화방안 전문가토론(7차)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3.12	건강기능성 식품개발방향과 추진전략	전북도청	이승형 박사
03.12	광역경제권 대응전략 세미나(3차)	전발연	모영환 박사
03.13	전라북도 및 국가 수소연료전지사업의 발전방안	전발연	신귀수 박사
03.14	새만금 개발방향 종합토론	서울	원도연 박사
03.18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북의 특화발전방안(3차)	전발연	이송인 박사
03.19	안전성 품질, 인증기관 유치 및 R&D 기반조성	서울	이승형 박사
3월중	디자인산업의 정책동향과 전북의 대응방안(1차)	전발연	장성화 박사
3월중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안 세미나(2차)	서울	박형창 박사
3월중	디자인산업의 정책동향과 전북의 대응방안(1차)	전발연	장성화 박사
4월중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안 세미나(3차)	서울	박형창 박사
미정	광역경제권 호남지역 연구원 세미나	-	원도연 박사

\*세미나의 날짜와 패널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